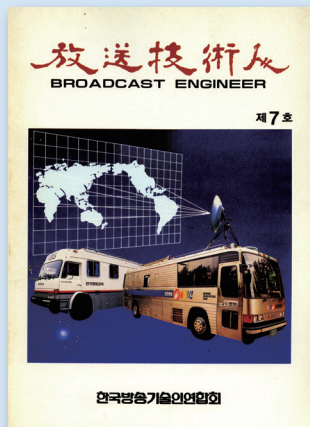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 4



제7호 1989년 7월 출간

(※) 금양기전에서 제작된 국산 중계차로서 88올림픽 때에는 전세계를 상대로 인공위성을 통하여 생생한 영상과 음향을 송출하여 한국을 방송기술 선진국으로 인정받도록 해주었다.

나는 이렇게 본다

-설문조사-



1989년 7월 25일 발행된 '방송과기술' 제7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꽤 긴 시간 전에 엔지니어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설문 내용입니다.

조사 이후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의 기술과 장비들은 모두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던 고민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기대. 27년이나 지난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네요.

-편집자주-

취지

요즘 우리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솟한 요구와 의견이 쏟아지고, 또 그만큼 새로운 시도와 시행착오가 되풀이 되고 있다. 혹자는 이를 혼란이라 여겨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나 우리의 생각은 이와는 조금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마땅히 이미 치렀어야 했을 사회발전을 위한 열기로 보고 있으며 그래서 또 이미 수렴되었어야 할 새로운 사회질서의 태동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방송도 여기에서 예외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방송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전망 등에 관한 여러 의견들이 최근 학계·방송계 혹은 신문·잡지와 서적 등을 통하여 꾸준히 다루어져 오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새로운 방송체계에 걸맞은 “방송기술의 위상정립”이라는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면 “방송기술”이란 과연 어떠한 위치에 처해있는 것일까? 방송의 매카니즘을 아주 간결하게 압축해 본다면, 자유공간을 전달경로로 삼는 신호의 송신원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비상사나 전시 등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 방송은 그 본래의 단순한 골격만을 드러나게 된다. 이때에 방송에 있어서 기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그 실제적인 측면으로 보아 단순히 Software나 Hardware나 구분 따져서 거의 절대적인 것이다. 물론 방송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단순히 뼈대만으로서 이루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방송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에 해당하는 보다 다양한 정보서비스 기능을 그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 또한 사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새로운 방송체계 내에서의 “방송기술의 위상정립”을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은 불원한 필연적으로 대두될 새 시대의 방송에서 엔지니어들의 설 자리는 과연 어떠한 것일까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한두 번의 시도로 어떤 답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며 최후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부단한 자기성찰과 자아인식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는 어떤 독선적인 견해를 앞세우려 하지 않는다. 다만 자칫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기술부문에 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방송기술인들 스스로의 의식을 먼저 알아보고자 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별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해왔던(?) 방송기술인들의 자질향상, 그리하여 선진방송의 실현을 위한 머나먼 장정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회원들의 자유분방한 의견들을 수용해 보았다.

설문조사 응답 내용

신장비의 지속적 등장에 따른 장비운용의 책임소재와 엔지니어의 위치

- * 장비에 따른 모든 사항은 운용하는 엔지니어의 고유 업무. 상황에 맞는 장비와 기술습득 필요.
- * 신장비 운용은 갈수록 용이하므로 누구나 조작 가능, 장비운용이 기술인 고유업무라는 고집을 버리고 장비를 open해야 함. 기술인은 기술적 자문의 영역을 유지.
- * 장비운용과 기술적 유지는 기술인의 고유권한. 새로운 장비운용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 필요.
- * 신장비 출현에 따라 기술연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 조직적인 기술 연수체제가 필요. 방송사고의 징계를 완화함이 바람직.
- * 장비의 운용과 정비를 동시에 책임지는 것이 필요. 새로운 이론이나 신 장비에 대한 획기적 기술연수 필요.
- * 방송장비의 운용, 관리, 보수 등은 기술인 고유업무, 운용상의 경직은 막아야 함.
- * 해당장비는 부서별로 담당자가 책임져야 함. 기술인은 방송의 원활한 상태유지에 최선.
- * 장비운용과 보수는 기술인의 책임. 그로 인해 기술인의 자질향상이 이루어짐.
- * 장비운용만이 아니라 교체, 도입, 기획 등의 모든 면이 기술인의 책임. 뉴미디어와 신장비의 등장에 따라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방송에서의 위치도 더욱 중요해짐.
- * 신장비 도입에 따른 교육 및 운용상의 Knowhow를 담당하는 담당자 제도 필요.
- * 장비관리의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고, 엔지니어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으로 장비운용에 임해야 함.
- * 신장비운용의 책임은 엔지니어에게 있음. 엔지니어는 방송의 최초와 최종을 책임져야 함.
- * 장비운용은 엔지니어 책임. PD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 장비의 디지털화로 창의적인 엔지니어의 수급과 충분한 기능으로 제자의 최후 책임자 역할을 담당할 것.
- * 신기술 습득에 매진. 장비구입시 운용자 입장에서 필요성과 실용성에 보탬이 되도록.
- * 각 현업 파트의 최고참이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권리도 주어져야 함.
- * 장비운용의 책임 소재, 보수 유지는 PRODUCT사의 정비기술자가 상주하여 보수하고 엔지니어는 INNOVATOR의 개념으로 상호보완 역할 담당이 바람직.
- * 장비운용의 책임소재는 당연히 엔지니어에게 있으며 행정력이 이들을

뒷받침 해주지 못함.

- * 신장비의 운용 책임에서 엔지니어는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맡아야 할 것이며, 운용책임은 운용자에게 두는 것이 타당.
- * 신장비를 접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음. 국내연수, 해외연수기회를 자주 가져야.
- * 장비운용의 책임은 당연히 엔지니어에게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야.
- * 엔지니어의 전문화(현업, 정비보수, 관리, 연구 파트로 구분)
- * 장비가 갖고 있는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는 엔지니어의 고유영역을 확보해야.
- * 장비운용의 책임소재와 엔지니어의 위치를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 본사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파트별로 재교육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
- * 전문 엔지니어의 관리가 필요. 그러나 단순 엔지니어가 되어서는 곤란.
- * 장비 운용에 있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 엔지니어 위치와 폭이 좁아짐.
- * 비록 장비의 운용이 간단해졌다 하더라도 고품질의 방송을 위해서는 엔지니어의 책임은 절대적.
- * 신장비의 지속적 등장에 따르는 엔지니어의 발전과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 * 개개인으로 부터 출발되는 노력과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위상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 봄.
- * 질문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 책임소재를 포기하면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책임소재가 중요하고 장비 운용, 기술개발, 연구는 전담자가 있단 말인가?
- * 신장비의 책임소재 위치를 따질 게재가 아니다. 장비운용에 따른 모만 잘 살린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 * 행정적으로 세밀한 시스템을 입안하여 운용과 보수를 구분해야.
- * 장비 운용의 책임은 언제라도 사용자이며, 엔지니어 위상은 지금과 비교하여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 * 엔지니어 직무 자체가 장비 운용 및 정비에 있는 바 신장비에 대한 운용 정비 또한 정비실 등의 활성화 등으로 문제가 없을 것.
- * 장비의 운용 및 운영은 엔지니어와 관계없이 새 장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운용할 권리를 가졌으면. 단 정비분야는 전문요원으로 대처.
- * 기존 운영체제에 따라 1차적 책임은 상급자에게 있고 2차적 책임을 운용자에게, 더불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완벽한 장비 파악을 이뤄야.
- * 신장비 운용에 따르는 책임은 단기적으로는 엔지니어에게, 장기적으로 기술영역의 독점은 아님.
- * 장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인해 앞으로는 엔지니어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

- * 신장비 운용에 대한 책임소재는 운용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엔지니어의 위치는 연출가와 동등한 위치에서 의견교환이 필요.
- * 엔지니어는 운용, 보수, 연구개발을 모두 겸비해야, 운용의 책임은 운용 부서에.
- * 첨단기술 집합체인 방송장비 운용보수에 있어 책임감과 주인의식 확보는 당연.
- * 세분화한 전문인력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 * 회귀 기종은 필수적으로 예비시스템을 갖추어야.
- * 운영 및 보수 정비의 분리.
- * 신장비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시 기술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됨.
- *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역할부담으로 장비운영의 책임소재는 상호 협조하에.
- * 기술인을 위한 보다 세련되고 전문화된 제반 여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 * 기술인이 제작현장에서 주인의식을 건지해야.
- * 외국의 예를 토대로 장비운용, 관리·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 * 책임소재를 묻기 전에 스스로 실력배양과 화합 단결을 통해 위상을 정립해야.

엔지니어로서 입사 당시의 소감과 지금 또는 앞으로의 비전은?

- * 입사 당시와는 상당한 변화. 다소 착잡. 방송의 Software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역을 포기해야 할 것.
- * 입사당시는 회사의 주체적 고리 속에 일만을 최선으로 여김. 지금은 많은 회의 느낌. 새로운 지식습득보다는 시간 메우기에 급급. 기술인 스스로 자성하는 의식 개혁부터 시작되어야 함.
- * 방송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은 알았지만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음. 앞으로 엔지니어로서 이에 상응하는 실력과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이런 침체는 계속될 것.
- * 입사 당시는 방송기술인의 역할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지금은 선진국의 기술 답습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데 낙담하고 있음. 부단한 노력으로 선진국의 방송 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
- * 방송기술인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며 앞으로도 계속 정진할 것임.
- * 방송기술업무상 참여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단조롭다.
- * 방송의 타부서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현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송기술인 협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함.
- * 방송에서의 기술, 위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생각엔 변화없음.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소홀할 수 없으며 분발, 노력할 때 앞으로의 역할과 비

전은 확고부동.

- *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영역과 위치가 축소되는 감이 있음. 앞으로는 과감히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이 필요.
- * 일반적 인식의 문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엔지니어 스스로 능동적 노력을 하고 주위여건의 개선이 필요.
- * 전체 기술인들이 방송기술의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면 앞날의 전망은 긍정적.
- * 꾸준한 노력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
- * 입사 당시는 엔지니어로서 자부심을 가졌고 앞으로는 더욱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함.
- * 입사 당시는 잘 몰랐고, 지금은 타부분만 못함. 앞으로의 비전도 다소 흐림.
- * 어느 정도 소명의식을 가졌고 향후 비전이 밝은 직종으로 사료됨.
- * 입사 당시는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
- * 대다수가 공기의 중요함을 모르듯 엔지니어에 대한 인식이 부족.
- * 주도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쓸쓸한 느낌. 기술인국으로의 발전에 엔지니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각자 노력 분발해야 함.
- * 엔지니어로서 위치 확립이 시급함. 기술인의 활력소를 찾아 분발하면 충분한 비전이 있음.
- * 입사 당시에는 몰랐으나 지금은 엔지니어로서 자부심 느낌. 앞으로의 전망은 스스로 하기에 달렸음.
- * 입사 시는 방송기술의 전모를 모른 채 호기심으로 충만. 지금은 방송사 내에서의 일부분의 권위주위 및 구조적 모순으로 당혹감 느낌. 차후의 비전도 매우 희미.
-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는 이 없이 할 바를 해야 하는 직종임.
- * 입사 당시는 칼라 TV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매우 희망적. 시간이 흐를수록 방송사 자체 내의 엔지니어들에 대한 시각이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함에 따라 비전을 기대하지 못함.
- * 시종일관된 자세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비전도 밝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어지는 동안 광대무변의 발전이 있었음.
- * 입사 당시나 지금이나 늘 재미있고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며 앞으로의 비전은 매우 밝다.
- * TV에 비해 RADIO 기술의 소외감은 현실. 각 분야 전문인의 인식이 필요.
- * 라디오 부문에 있어서 편중적, 지속적 인원 배치를 함으로써 의욕감퇴. 자극 부족으로 인한 능률성과 발전성이 없다.
- * 모든 사원이 입사 당시의 VISION을 퇴색시키지 않도록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갖도록 해야 할 것임.
- *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입사. 회사 경영진의 기술인에 대한 물

이해와 5공시절 억압정책으로 덕망 있는 선배들이 몰락하였으므로 현 회사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들이 후배를 위하여 희생정신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침체기는 계속될 것.

- * 입사 당시나 현재나 동일한 심정으로 일함.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 혜택은 부족.
- * 엔지니어 위치에 대해 비애 내지 한결. 현업 기술과 송출기술 통합으로 독립예산체제로 변경 요구.
- * 엔지니어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의 일을 추진하자.
- * 엔지니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입사한 이상 남보다 한발 앞서 나가도록 노력해야.
- * 시대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송인의 자세 중요.
- * 방송장비의 현대화에 따른 엔지니어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리라 예상.
- * 입사 당시는 방송기술에 대한 신기종과 신기술의 습득에 많은 관심을 보임.
- * 입사 시에는 대단한 포부. 현재에는 엔지니어의 입지가 계속 줄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 전문가적인 정신으로 시청취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으며 따라서 엔지니어의 비전은 매우 낙관적.
- * 입사 당시나 지금이나 충분한 자부심과 긍지로 스스로 입지가 가능하리라 봄.
- * 신장비의 개발과 무인화의 추세로 인하여 엔지니어의 길이 좁아질 것으로 봄.
- * 방송인이라는 자세가 필요. 점점 소명의를 잃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 회사의 운영방식. 전 방송관련인들의 기술적 이해. 필요 없는 자만심 등을 버려야 입사 당시의 만족이 남을 것.
- * 충분한 지식 없이 입사 했으나 업무의 성격을 파악한 후 실망을 느꼈고 자기 계발에 힘쓸 뿐 대안이 없다.
- * 엔지니어는 방송국 허가 요건 중 한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이 있음.
- * 방송엔지니어로서 커다란 긍지로 일하고 있지만 사회 구조적 방송의 제도적인 그릇된 인식아래서 생활은 피곤하고 앞으로 전문기술인의 지위가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뿐.
- * 입사 당시에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제2민방의 출현에 따라 방송기술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
- * 신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기대를 가지고 입사 했으나 수동적인 업무와 타성에 젖은 생활에서 탈피해야.
- * 행정편의주의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해 반감된 의욕을 개선할 방안과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방송기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언?

- * 기술습득도 중요하지만 선후배간의 이질적인 인간관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으며 자기에 둘러쳐 있는 담을 헐어내고 허심탄회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
- * 매너리즘으로 부터 탈피. 자긍심과 오기로 나타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사고방식.
- * 자신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교육과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 기술인 상호간의 접촉을 통한 기술이전이 있어야 함.
- * 기술인의 영역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한 기술연마와 기술축적이 필요. 타직종의 종사자들과도 언행에 뒤지지 않도록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는데 노력.
- * 자기분야외의 학문에 너무 약하다. 행정·문학·경영 등 인문계열의 습득과 경험이 필요.
- * 자기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회사에서도 연수의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함.
- * 스스로의 노력과 자세전환이 필요. 건전한 방향의 자극과 선의의 경쟁도 필요. 국내외 연수 교육의 지속적 활성화와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
- *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LATT에 합격한 사람은 해외방송유관단체에 연수토록 할 것.
- * 현근무조건에서는 교육받을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해당교육을 자주 실시. 해외교육강화.
- * NEW MEDIA 시대의 조류에 맞는 교육과 사고방식을 가져야함.
- * 스스로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 회사나 주위에서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함.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회의 노력도 필요.
- * 타 분야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을 해소하고, 성취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연수와 근무 부담의 경감 등을 고려해야 함.
- *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 필요. 고질적인 고집은 버려야.
- *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국내외 연수기회 확대 필요. 산학 시스템도 필요.
- * 연수 위탁 교육 및 실제실습을 통해 입사 전에 전문인으로 발판 마련. 일정기간 순환 근무 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전문성을 살리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
- * 입사 후 1~2년간은 연구소에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외국 및 국내 연구소에 파견 근무토록 했으면. 순환근무에 중점을 두었으면 함.
- * 신장비의 개발과 장비의 보수 및 운용교육을 수시로 실시. 가능하면 방송기술 전문교육기관 설립.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방송기술인을 양성.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선후배 기술인 모두가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가까이 하고 실천해야 함.

- *첨단 기술 및 정보에 계속적으로 밀착되어야 하고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
- *전문성에 대한 금지와 전문교육이 강화되어야.
- *교양교육과 방송기술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계획적인 연수 시스템이 필요. 근무시간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 *날로 발전되는 방송장비와 선진국의 운영상태를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자질의 향상을 도모케 함.
- *기술인 시상제를 시급히 마련토록 해야 함.
- *협회에서 주도적으로 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인격도야분야도 교육하여야 함.
- *단순한 운용보다는 연구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각 지방사 및 본사간의 인사교류로 인하여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함.
- *제작사와 자매회사 결연으로 순환근무 실시.
- *첨단 장비 생산업체 위탁교육 실시.
- *서울 MBC 실습 및 합동 근무. 계열사 간 방문으로 정보 교환.
- *정기적인 교육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전달이 문제.
- *국내외 전문 기술 정보를 "방송기술인"지에 더 많이 소개 바람.
- *여러 소속의 방송인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필요.
- *방송기술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 2~3회 정도의 교환 세미나를 정착시킬 필요.
- *기술 분야가 가장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 재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이 필수적.
- *수동적인 자세보다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개발하려는 절대적인 의지가 있어야 함.
- *엔지니어의 위치가 타 직종에 비해 뒤진다는 자학에서 벗어나야 함.
- *방송 제작기술, 송출, 운용 등 세분화 전문화에 대한 적극 지원이 중요.
- *제작기술과 송출기술이 분리되어야만 기술인의 자질 향상이 이룩될 것.
- *교육 전담반 구성.
- *방송기술인으로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홍보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 같다.
- *방송 기자재 MAKER측에 일정기간 위탁근무를 시킬 수 있었으면.
- *교육국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인 신기술을 습득하고 타성에 빠지지 않고 동기 부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국내외 유수한 교육기관에 회사 경비로 위탁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 *전문 방송기술연구소 설립 (KBS, MBC 연구소 통합). 장비 개발 및 신입사원 교육 등.
- *기술인만의 모임이 자주 있어 친목 겸 정보도 교환하여야 한다.

- *기술인 각자의 노력이 우선이나 사내의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신장비를 송출 및 제작에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자의 교육을 1개월 이상 실시하여 신장비의 운용 및 예방정비까지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 *기술습득에 있어 현재와 같이 도제 형식이 아닌 일정한 형태의 교육실, 실험실, 운용연습실 등을 설치 해 교육이수 후 현업에 임해야.
- *부서별, 국별, 자체 세미나를 정례화하고 study group을 활성화 해야.
- *신입사원 채용 시부터 해당되는 전공과 관련한 과목을 시험문제로 하여 선별채용해야.

Desk 진단

신장비의 지속적 등장에 따른 장비운용의 책임소재와 엔지니어의 위치

방송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는 방송기술의 변천사와 일치한다 하여도 결코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방송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방송장비의 출현은 우리 방송기술인의 역할을 무한히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방송장비의 개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술인들의 역할을 점차로 축소,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는 전자기술을 방송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신장비의 운용 및 조작에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몇 가지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결코 쉽게 받아들여 질 수 없는 것이다. 방송장비가 단순히 조작과 사용만으로 해결되어지기 보다는 기기의 전반적인 이해와 장비가 갖고 있는 메카니즘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고품질의 프로그램 제작과 제작기법의 개발 등에 의한 장비의 최대한 활용이 동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방송기술인들은 전반적인 책임과 충분한 사전 교육 특히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 등 기술인 스스로 신장비의 개발이나 운용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만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에서 개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노력과 단결된 힘으로 이루어지는 위상정립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리라 본다.

엔지니어로서 입사 당시의 소감과 지금 또는 앞으로의 비전은?

방송기술인으로서의 출발은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떠올려지는 기억이 없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10년 세월을 넘기고 보니 나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지닌 막연한 아집이나 편견에 대한 부단한 도전의식이 선배들의 눈에는 반항과 거부의 태도로 비쳐지고 있으며, 이제 갓 우리와 함께 방송기술의 길에 접어들어 후배들에게는 시류에 영합하는 비겁한 직업인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어찌랴

그러나 살아 온 세월만큼 방송의 중요성과 이러한 직업을 택한 나의 방

송관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껴오던 터이다. 80년대 후반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열기가 가득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민주주의 실천이 일견 가능한 것도 같다. 그러나 날로 증폭되는 외세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특히 방송에 있어서의 외래화는 우리가 쓰는 방송용어와 방송기술용어의 대부분이 외래어, 외국장비임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에서 우리들의 시대적 역사의식은 필연코 우리의 자주성과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가능한 방송문화의 정착에 있다고 본다.

방송기술인으로서 방송이 사회의 어떤 분야보다도 무차별하게 외국방송문화에 노출되고 있음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 점차 시대가 국가와 사회를 국제화, 급격화한다고는 하나, 새로운 방송기술 포맷이 결정될 때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선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가 외국의 기술력을 딛고 일어나 한국방송기술의 새 장을 펼쳐리라고 기대한다.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기술이 방송기술에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방송매체로 등장될 CATV, HDTV, 데이터 방송, 정지화 방송, 위성 방송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등 정보화 사회로 추구되는 대중문화가 필연적으로 방송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들이 미래에 대비한 부단한 노력과 방송기술인이라는 우리의 직업에 대한 비전은 상상을 초월할 것임이 분명하지 않는다.

방송기술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제언?

방송기술은 항상 첨단과학을 배경으로 발전해 왔고 또 발전해 갈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넓은 시장분포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부 선진국들이 장악해 온 방송장비의 생산현장은 쉽사리 깨기 힘든 철옹성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전자기술의 일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보여준 괄목할 만한 성장의 결과는 이러한 벽의 파괴가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님을 증명해 주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라 하더라도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신념으로 부딪쳐 가는 것과 거의 포기한 상황에서 힘겹게 접근해 가는 것과는 그 결과에 있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까지 방송국 내부의 연구소나 일부기업체에서 관여하고 추진해 온 Project들이 여러가지로 한국의 방송기술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헌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으로 방송장비 전반에 걸쳐 골고루 관심을 가져 특별한 지원에 의해 가능성이 엿보이는 분야가 있을 경우 이를 과감히 육성해 나가는 적극성이 사실상 부족한 형편이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방송계의 일각에서는 주어지는 입력에 대응한 만큼의 출력을 얻고자 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소홀히 취급되어 온 사실들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방송국이나 관련기업체 그리고 관련학계 등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축적된 정보와 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존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 연구기관의 확대와 교육 내지는 전문연구기관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